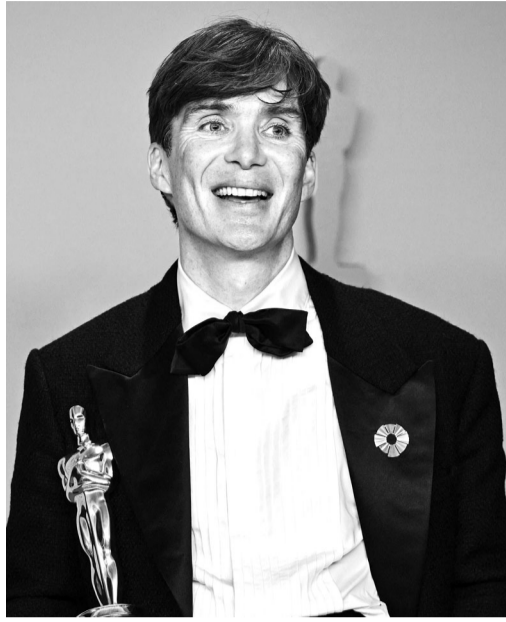


‘오픈하이머’ 아카데미 7관왕



‘감독상’ 놀런 감독



‘남우주연상’ 킬리언 머피



‘여우주연상’ 에마 스톤

작품상·남우주연상 등 싹쓸이... 크리스토퍼 놀런, 생애 첫 감독상 에마 스톤, 여우주연상... 한국계 감독 ‘패스트 라이브즈’ 수상 불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천재과학자 로버트 오픈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픈하이머’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다.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픈하이머’는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아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작이 됐다.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이 ‘오픈하이머’에 돌아갔다.

‘오픈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픈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로, 전 세계적인 흥행 성적과 평단의 호평을 등에 업고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후보로 오른 부문도 13개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동양적 정서가 짙고 아시아계가 활약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작품상을 포함한 7관왕을 한 것과 달리 올해 시상식은 미국의 위인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 ‘오픈

하이머’가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다.

놀런 감독은 이날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았다. 그는 ‘딩케르크’ (2017), ‘인터스텔라’ (2014), ‘다크 나이트 라이즈’ (2012), ‘인셉션’ (2010), ‘다크 나이트’ (2008), ‘배트맨 비긴즈’ (2005)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에도 유독 아카데미 감독상과는 인연이 없었다.

남우주연상은 ‘오픈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에게 돌아갔다. 그는 오픈하이머의 천재성과 인간적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받았다.

수상자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합이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요르코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랑켄슈타인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에마 스톤이 품에 안았다.

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라라랜드’ (2016)로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여우조연상은 ‘바른 아카데미’에서 미국 명문고 주방장을 연기한 데비안 조이 랜돌프, 남우조연상은 ‘오픈하이머’에서 오픈하이머의 적수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수상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미국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

트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각본상은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에 돌아갔다.

장편애니메이션상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수상했다. 미야자키 감독의 장편애니메이션상 수상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2)에 이어 두 번째다.

장편다큐멘터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담은 므스티슬라프 체르노프 감독의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 받았다.

미국 외 국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장편 영화상은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돌아갔다. 영상이 뛰어난 ‘가여운 것들’은 의상상, 분장상, 미술상 등 관련 부문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었다.

10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플러워 킬링 문’은 단 하나의 상도 못 받았다.

‘오픈하이머’와 함께 개봉해 흥행을 이끌면서 ‘바벤하이머’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던 ‘바비’는 주제가상을 받는 데 그쳤다. 연출자인 그레타 거윅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들지 못한 것도 논란을 낳았다.

이번 시상식에 한국 영화는 노미네이트되지 않았다. 한국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해 주목받았다. 이듬해 시상식에선 배우 윤희영이 한국계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잡가·사자탈춤...서도문화 진수 만끽

전통연희놀이연구소, 23일 광주예술의전당 가·무·악 연희 공연



정재일 대표와 단원들이 황해도에서 성행한 ‘사자탈춤’을 연습하는 모습. <사자전통연희놀이연구소 제공>

고려 문화의 중심지였던 황해도는 탈놀이 ‘강령탈춤’은 물론, 황해도 소리와 봉산지방 탈놀이 등의 발원지로 꼽힌다. 수려한 경치와 풍부한 물산으로 인해 놀이에 관한 흥취나 뒷받침이 좋아 고려 문화를 융성시켰다.

사단법인 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가 ‘문화의 중심 황해도 문화예술-리는 춤을 내고 춤은 신명을 부른다’를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강령탈춤 인형 전시부터 황해도 잡가, 염불, 사자탈춤 및 취발이 춤까지 다양한 가·무·악 연희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잡가 ‘산염불’과 조금 빠른 템포의 ‘자른염불’을 이어 부른다. 염불의 하나로 탁발승들이 주로 동양하며 이승에서 적선하던 극락에 간다는 덕담을 실은 ‘희심곡’도 펼쳐진다. 불가에서는 ‘화정’이라 칭하며 스님들에 의해 현재도 불리는 곡. 팽과리와 장구, 바라, 징 등 20여 전통 기악의 향연에 담긴다.

‘사자탈춤’과 ‘팔목중놀이’, ‘노승춤’ 등 서도 지방의 정취가 배어 있는 작품들도 펼쳐진다. ‘취발이춤’을 비롯해 배방이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배방이의 사랑’, 팔도 호랑이들이 인간으로 변신해 농주·죽방울·버나·팝핑 등 연희공연을 선보이는 ‘호랑이 재주잔치’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공연장 로비에서 열리는 ‘강령탈춤 인형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에서 실연하는 탈과 의상을 30cm 인형으로 재현한 전시다. 소형탈 및 소도구 제작에 우리문화전문단체, 복식 제작에 모노스토리 우수정 대표.

강미화 홍보팀장은 “그동안 자주 접하기는 어려웠던 황해도의 탈춤, 인형극, 소리 등을 지역에 소개하는 공연을 마련했다”며 “서도 지방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번 작품들이 남도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감성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오색버나 키트 할인판매 등 예매 이벤트 진행 중(티케팅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직군탐색 산학과정 전남대 교과목 개설

문화예술 전문가들 생생 강연...학생 진로 선택 도움

‘공연 미디어 전문가’, ‘문화유산 교육사’, ‘음악 비즈니스 산업 전문가’,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 ‘아트아키비스트’ 등.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연을 대학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개발한 직군탐색 산학과정이 2년 연속 전남대 교과목으로 개설됐다. 이번 강연은 오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현장 전문가 강연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문화예술 현장의 직무 및 실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학기로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업은 전남대 교양과목인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로 운영된다.

첫 강의를 한국고용정보원 김종진 연구위원이

오는 26일 ‘문화예술 분야 직업세계 이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토대로 향후 유망한 직업군 등 현황과 미래 가능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김준섭 칠곡문화재단 부부장의 ‘공연 미디어 전문가’를 비롯해 ‘문화유산 교육사’ (박지영 문화재단 연구소 대표), ‘음악 비즈니스 산업 전문가’ (이준상 칠리뮤직코리아 대표),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 (김삼미 (주)블루버드 대표이사), ‘아트아키비스트’ (이지은 아키비스트) 등 현장전문가들의 총 6회에 걸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지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ACC와 연계해 진행되는 수업으로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며 “수강했던 학생들의 입소문, 후기를 통해 신청 인원이 초과될 만큼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 참가작 공모

실연 가능 연희·무용 분야... 15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올해 ‘토요 상설공연’에서 공연할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이번 공모는 4월 13일-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전통문화관 내 서석당·너털마당 일원에서 실연 가능한 전통 공연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예술인은 판소리·산조 분야에서 지원하며, 예술단체는 국악 창작이나 연희·무용 분야에

서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공연 역량을 가진 개인 및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 선정단체(개인)나 출연진 30% 이상이 아마추어·동아리 수강생인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판소리·산조 분야는 회당 출연료 100만 원, 국악 창작 및 연희·무용 분야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며 타 지역은 30% 이내 선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